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9. Vol. 31, No. 1, pp.1-19
ISSN 1225-1488
https://doi.org/10.19031/jkheea.2019.03.31.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김지혜[*] · 유난숙[**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생활과학연구소[**]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n problem behavior

Kim, Ji Hye[*] · Yu, Nan Sook[**1)]
M. E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cretely reveal the effect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 school life adaptation on the problem behavior,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2,107 student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which was the 4th year data(2013) of 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KCYPS) 2010. The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2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upervision, affection, reasonable explanation, excessive interference, excessive expectation, and inconsistency), school life adaptation(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friend, school regulation, and learning activity), and ego-resilience on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with friend(-)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followed by learning activity(-), inconsistency(+), ego-resilience(-), excessive interference(+), and supervision(-). However, the remaining sub-variables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 ego-resilience was found to moderate the effects of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parents' positive child-rearing attitud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hool adaptation on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significant for the effect of negative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refore, various ego-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researched as a part of the safety education through the home economics class.

Key words: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부모의 양육태도(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aptation),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사회적·신체적·정서적인 면의 발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요구되는 과업들을 적절하게 해결한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한다(Park, 2005).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의해 기대되고 인정되는 행동 양식으로부터 벗어난 사회적·신체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다. 특히 치열한 입시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시기에 주위 기대수준으로부터 벗어난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Nam, 1999).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체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Ban, 2009).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 중에서도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매우 중요한 환경 영역이다(Rhee, 2005). 부모의 애정적 행동은 초기 청소년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통제적 역할을 하며, 이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Juang, 1999; Kang, 2008, p9에서 재인용).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곳이고 교사와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장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며,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2005). 학교생활적응은 교사 및 친구와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의 정서·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문제행동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Kim, 2008).

인간은 가정과 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개인내적인 개입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내적인 개입방법 중 하나인 자아탄력성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사회적·신체적·심리적 well-being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이다(Jeong & Kim, 2015). 특히 2015 개정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12기가02-05])에 자아탄력성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Ministry of Education, 2015)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Huh & Ok, 2013; Kim, 2015; E. Lee, 2011; Lee & Choi, 2011),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Han, 2007), 학교생활적응 수

준이 높을수록(Kim, 2008) 문제행동을 적게 경험하고, 교사가 학생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또한 문제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on, 2015; Kim, 2011; Kim, 2012; Lee, 2014; Park, 2012; J. Park, 2013).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Cho, 2006; Lee, 2015)을 하고 조절효과(Park, 2013)를 갖는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본 연구 중에서 생활지도교사와의 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J. Kim, 2014),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 Choi, & Jang, 2017)에서는 학교적응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접하는 문제를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어 지속적인 실천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천교과(Lee et. al, 2013)로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안전'이 추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가정과수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이란 고통 또는 고통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제거하여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H. Kim, 2014).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정과수업을 통한 안전교육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및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 부정적) 및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를 갖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Lee와 Choi(2011)는 초기 청소년이 부모가 수용을 많이 하고 심리통제를 적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초기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E. Lee(2011)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고 감독을 많이 한다고 느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Huh와 Ok(2013)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Kim(2015)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 강하거나 적절한 감독 및 처벌을 받은 자녀의 사회적 연대, 인지된 억제력, 자기통제력, 준법의식이 높고 사회적 긴장이나 범죄적 접촉이 줄어든다

는 Ki(2001)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Baek(1999)은 부모의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의해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Kim(2003)은 아동이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 요인이 포함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할수록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Seo(2005)는 청소년이 부모와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이고 통제적이고 감독이 소홀하다고 느낄수록 청소년들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So(2008)는 청소년이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을 낮게 지각할수록,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을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을 확인했다. E. Lee(2011)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하고 방치한다고 생각할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Song(2013)은 부모의 학대, 돌봄 부족, 과보호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대, 돌봄 부족,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Huh와 Ok(2013)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im(2002)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관계없이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과 애정을 갖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할수록 자녀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학교생활적응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감소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Lee(1998)는 학교 내 사회적 관계는 연구에서 다루어진 청소년 발달의 거의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학생-교사관계 그리고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살충동성, 학습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그리고 생활전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Han(2007)은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신이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Lee(2015)는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은 학생의 기질과 사회적 자신감이 또래집단과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Ban(2016)은 교사관계가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부모의 방임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부정적인 교사관계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이들이 드러내는 문제행동은 친구와의 관계적 문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Kim(2008)은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경험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아탄력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im(2012)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2012)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했다. Lee(2014)는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임을 보여주었다. J. Park(2013)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Kim(2011)은 자아탄력성이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했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적응할 수 있는 내면화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규명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알아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Cho(2006)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Lee(2015)는 부모의 거부적, 과보호적,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다고 보고했다. Park(201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적대 공격 행동, 걱정 불안 행동, 과잉 산만 행동, 전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Hong(2014)은 자아탄력성이 모애착에서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알아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J. Kim(2014)은 그룹홈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애착이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생활지도 교사가 내적인 안정기지 역할로 작용하여 도움과 심리적 안정을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복탄력적인 기능이 높아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견뎌내는 힘이 생기며, 현재와 미래를 보다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Min 외(2017)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즉, 학교적응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고등학교 1학년생)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패널 집단으로 선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을 통해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7년 동안 매년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추적조사를 한 것이다. 78개 중학교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고 각 학교별 1개 학급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지에 응답한 고등학교 1학년 2,351명 가운데 무응답 처리를 한 243명과 학년을 2학년으로 기재한 1명, 총 244명을 제거한 후 2,10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

자 51.0%, 여자 49.0%로 남학생의 비중이 높다. 부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4%, 대학교 졸업 이상이 54.6%이며, 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7.3%, 대학교 졸업 이상이 42.7%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중간계층이 52.1%로 가장 높고, 상위계층이 25.9%, 하위계층이 2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KCYPS) 자료의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등이며, 문항들은 모두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등과 같이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들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정도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1) 청소년의 문제행동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5개 요인으로 구성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요인 중 사회적 위축은 Kim과 Kim(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수정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우울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Kim, Kim, & Won, 1984)의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3개 요인의 경우, Jo와 Im(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수정·보완하여 신체증상(8문항), 공격성(6문항), 주의집중(7문항)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하위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청소년의 공격성 0.785, 사회적 위축 0.880, 신체증상 0.818, 우울 0.889, 주의집중 0.768, 문제행동 전체 0.929이다.

(2)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Huh(1999), Kim(2003)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 과잉간섭(4문항), 과잉기대(4문항), 비일관성(3문항) 등과 같이 6개의 하위요인, 총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긍정적인 양육태도(10문항)로 구분하고,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을 부정적인 양육태도(11문항)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7)

Variables			Frequency *N* (%)
Gender		Boy	1,074 (51.0)
		Girl	1,033 (49.0)
Academic attainment	Father	High school and under	865 (45.4)
		College and over	1,043 (54.6)
	Mother	High school and under	1,103 (57.3)
		College and over	821 (42.7)
Working situation	Father	Working	1,860 (97.4)
		No working	49 (2.6)
	Mother	Working	1,320 (68.6)
		No working	603 (31.4)
Household yearly income		Lower class	442 (22.0)
		Meddle class	1,044 (52.1)
		Higher class	519 (25.9)

다시 분류하였는데, 이는 Kim과 Hong(2015)의 연구에서 구분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감독 0.769, 애정 0.806, 합리적 설명 0.776, 과잉간섭 0.720, 과잉기대 0.684, 일관성 0.678이다.

(3) 학교생활적응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Min(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Jeong, 2009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관계(6문항), 교우관계(5문항), 학교규칙(5문항), 학습활동(5문항) 등과 같이 4개의 하위요인 및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대인관계로 구분하고, 학교규칙과 학습활동을 학교적응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Han(2015)의 연구에서 구분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배점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대인관계 0.797, 교사관계 0.813, 교우관계 0.621, 학교적응 0.811, 학교규칙 0.761, 학습활동 0.748이다.

(4) 자아탄력성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에서는 자아탄력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Block과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Yoo와 Shim(2002)의 문항을 사용하고, Kwon(2003)의 연구에서 재인용한 문항내용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등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829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평균은 1.87(*SD*=.38)이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평균은 2.95(*SD*=.4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평

Table 2. Descriptions of variables

Variables			*M*	*SD*
Problem behavior			1.87	.38
Parental nurture attitude	Posi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2.95	.46
		Supervision	3.09	.58
		Affection	2.98	.55
		Reasonable explanation	2.76	.58
	Nega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2.28	.50
		Excessive interference	2.20	.60
		Excessive expectation	2.44	.56
		Inconsistency	2.17	.61
Adaptation to school lif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99	.41
		Relationship with teacher	2.87	.58
		Relationship with friend	3.11	.38
	School adaptation		2.85	.42
		School regulation	2.93	.49
		Learning activity	2.77	.49
Ego-resilience			2.80	.39

균은 2.28(*SD*=.50)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로 보면, 감독의 평균은 3.09 (*SD*=.58), 애정의 평균은 2.98 (*SD*=.55), 합리적 설명의 평균은 2.76 (*SD*=.58), 과잉기대의 평균은 2.44 (*SD*=.56), 과잉간섭의 평균은 2.20 (*SD*=.60), 비일관성의 평균은 2.17(*SD*=.61)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비일관성 수준이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의 평균은 2.99(*SD*=.41), 학교적응 평균은 2.85(*SD*=.42)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교우관계의 평균은 3.11 (*SD*=.38), 학교규칙의 평균은 2.93 (*SD*=.49), 교사관계의 평균은 2.87 (*SD*=.58), 학습활동의 평균은 2.77 (*SD*=.49)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평균은 2.80 (*SD*=.39)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항의 역점수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모형의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구하고,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ng(2008)의 연구에서 성별, 나이, 부의 학력, 모의 직업이 문제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증명된 점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Jeong(2016), Lee, Lee와 Han(2015)의 연구에서 부모 학력, 가구연간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성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구의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즉 4차년도 가구소득을 2013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욕구대비 소득비 1.5이하(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는 하위계층으로, 1.5~3(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 300% 이하)은 중간계층으로, 3초과(최저생계비 300% 초과)는 상위계층으로 분류한 다음 중간계층을 기준으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2].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0이하(VIF 10 이상)이면 심각하고, 공차한계 값이 .4이하(VIF 2.5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를 함께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고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예측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 조절변수 자아탄력성, 상호작용항(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자아탄성력,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자아탄력성, 대인관계×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자아탄력성)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화중심(mean centering)을 적용하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절효과는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에 근거하는 완충효과모델로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Kim, 2013). 조절효과 분석은 주효과 분석에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시켰을 때, R2(설명력)이 유의하게 변화하고,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예측요인과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저소득층 선정 지표가 최근에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여기서는 이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각 변수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 1은 성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구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며, 모형 2는 학교생활적응을, 모형 3은 자아탄력성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가 1.066～2.369이며, Durbin-Watson은 1.986으로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33.678)이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6가지 하위요인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비일관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줄어들며,

Table 3. Influence of variables on problem behavior

(*N*=2,107)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Gender (Boy)		-.128	-.169***	-.130	-.171***	-.122	-.162***
Academic attainment of father (College and over)		.013	.017	.009	.012	.009	.012
Academic attainment of mother (College and over)		-.009	-.012	.010	.013	.012	.015
Household income (Lower level)		.083	.082***	.067	.066**	.069	.068**
Household income (Higher level)		.012	.014	.029	.035	.031	.037
Independent variables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ositive	Supervision	-.091	-.135***	-.037	-.055*	-.037	-.055*
	Affection	-.088	-.126***	-.046	-.066*	-.038	-.055
	Reasonable explanation	-.041	-.063*	-.017	-.027	-.015	-.023
Negative	Excessive interference	.097	.154***	.057	.091**	.062	.098*
	Excessive expectation	.000	.000	.023	.034	.022	.032
	Inconsistency	.069	.111***	.060	.097***	.063	.102***
School life adapt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lationship with teacher	-	-	-.003	-.004	.004	.007
	Relationship with friend	-	-	-.230	-.230***	-.204	-.204***
School adaptation	School regulation	-	-	.035	.045	.035	.045
	Learning activity	-	-	-.170	-.218***	-.169	-.217***
Ego-resilience		-	-	-	-	-.076	-.078**
Constant		2.210***		2.988***		3.046***	
R^2		.176		.277		.281	
F		33.678***		44.165***		42.291***	

*p<.05, **p<.01, ***p<.001

과잉간섭과 비일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Seo(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녀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Kim, 2009; So, 2008; H. Lee, 2011; Huh & Ok,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감독, 애정,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44.165)이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7.7%로 나타나 모형 1보다 증가하였다. 감독, 애정, 과잉간섭, 비일관성은 모형 1과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합리적 설명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와 학습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Han(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경험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Kim(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학습활동, 비일관성, 과잉간섭, 애정, 감독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42.291)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8.1%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추가해도 감독, 과잉간섭, 비일관성, 교우관계, 학습활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애정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학습활동, 비일관성, 자아탄력성, 과잉간섭, 감독 순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 et al., 2017)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요인은 가족건강성이고,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성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제변수인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가구의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성별, 가구의 소득수준(하위계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감독 등이,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습활동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력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을 상호작용요인으로 추가 투입하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N=2,107)

Variables		Main effect		Moderating effect	
		B	*β*	*B*	*β*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 posi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osi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	-.223	-.270***	-.217	-.263***
	Ego-resilience (B)	-.155	-.160***	-.149	-.153***
	A×B	-	-	-.203	-.123***
	Constant	1.889***		1.905***	
	R^2	.149		.164	
	F	43.920***		43.038***	
	F change	-		31.521***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 nega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Nega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C)	.199	.265***	.206	.273***
	Ego-resilience (B)	-.248	-.255***	-.248	-.255***
	C×B	-	-	-.057	-.036
	Constant	1.902***		1.903***	
	R^2	.152		.153	
	F	44.922***		39.655***	
	F change	-		2.513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terpersonal relationships(D)	-.265	-.289***	-.250	-.272***
	Ege-resilience(B)	-.113	-.116***	-.102	-.105***
	D×B	-	-	-.229	-.128***
	Constant	1.888***		1.908***	
	R^2	.150		.166	
	F	43.917***		43.260***	
	F change	-		33.003***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E)	-.266	-.291***	-.247	-.271***
	Ego-resilience (B)	-.158	-.163***	-.154	-.159***
	E×B	-	-	-.213	-.117***
	Constant	1.896***		1.905***	
	R^2	.161		.174	
	F	47.524***		45.679***	
	F change	-		27.663***	

***p<.001

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는 β값이 각각 -.270(p<.001)과 -.16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14.9%에서 16.4%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23, p<.001). 즉,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종속변수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Figure 1>과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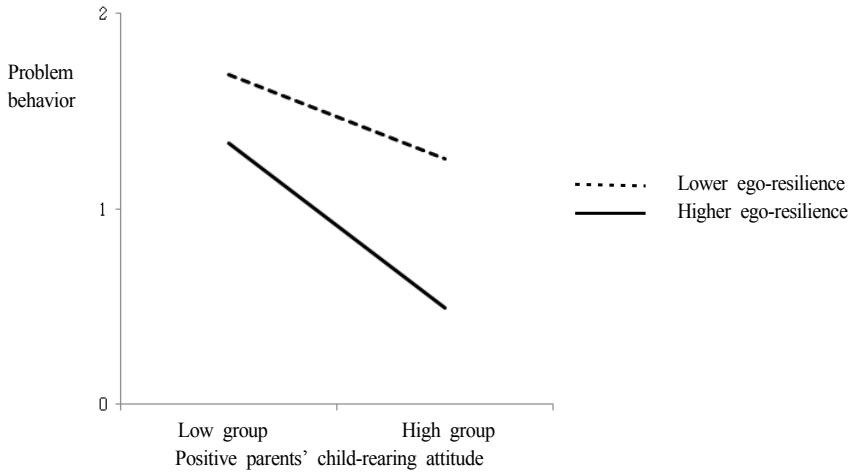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성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 간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로 유아의 과잉 산만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의 자아탄력성 조절효과로 유아의 전체적인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Park(2013)의 연구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에 따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주효과는 β값이 각각 .265(p<.001)과 -.255(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15.2%에서 15.3%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로 인한 완충작용으로 유아의 걱정·불안 문제행동 및 유아의 전체적인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Park(2013)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에 따라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와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의 주효과는 β값이 각각 -.289(p<.001)와 -.11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대인관계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15.0%에서 16.6%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28, p<.001). 이는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종속변수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Figure 2>와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 간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대인관계 수준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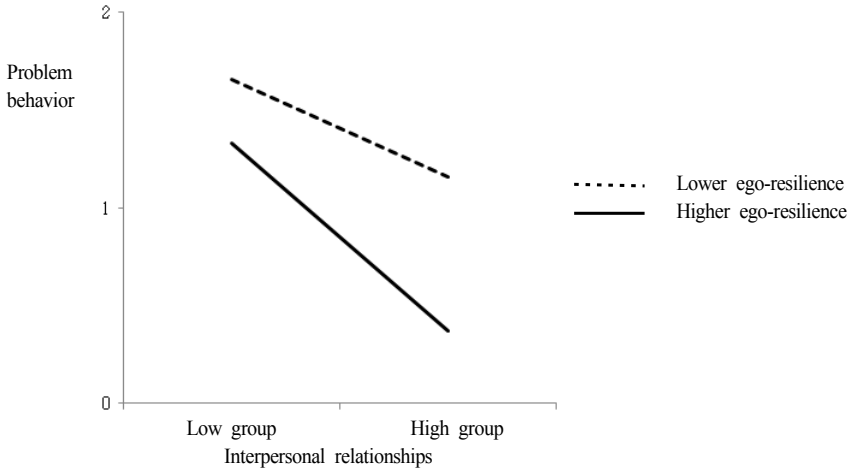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problem behavior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자아탄력성에 따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의 주효과는 β값이 각각 -.291(p<.001)과 -.16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16.1%에서 17.4%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17, p<.001).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학교적응과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종속변수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Figure 3>과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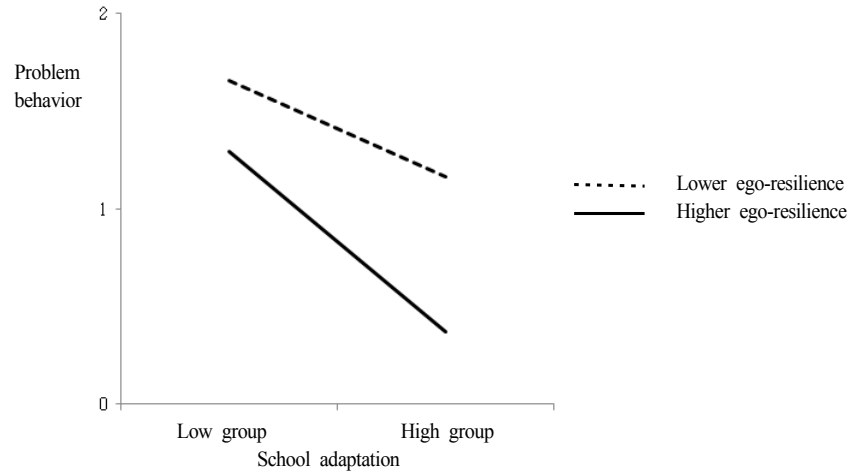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influence of school adaptation on problem behavior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정과수업을 통한 안전교육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2013)인 고등학교 1학년생 총 2,107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및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 비일관성(+), 자아탄력성(-), 과잉간섭(+), 감독(-)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교우관계, 학습활동, 자아탄력성,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하고, 반면 비일관성, 과잉간섭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원만한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친구는 청소년의 중요한 지지체계로서, 친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습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인 학습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방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주어진 학업이라는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얻은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문제행동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일관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 문제행동에 취약해지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이끌어내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방어가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을 과잉간섭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문제행동이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 교우관계, 학습활동, 자아탄력성, 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비일관성, 과잉간섭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우관계, 학습활동, 비일관성, 자아탄력성, 과잉간섭, 감독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보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 중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교생활적응,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되, 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학교생활영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대인관계, 학교적응 각각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 및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부모의 감독과 애정, 자녀와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의해 기대되고 인정되는 행동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대인관계와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을 줄여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원만하고 질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비사회적인 행동 및 심리적인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여 학교규칙을 준수하려고 더 노력하는 행동을 하며, 학습활동에 있어서 높은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과제를 더 잘 받아들이고 도전하여 수행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대인관계, 학교적응 각각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요인, 즉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의 성취기준에 명시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내적인 개입 방안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 안전과 관련된 자아탄력성은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3학년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성취기준해설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가족 문제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치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례별로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Ministry of Education, 2015)."로 언급되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가정과수업을 통한 부모준비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수업을 통한 부모준비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며, 부모가 된 후 자녀의 학업 성취를 돕고 전체 가족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며 부모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Park, 2009). 따라서 청소년들이 예비부모로서 부모 됨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정과교사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교육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육아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신들의 성장과정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청소년 자신들이 가졌던 느낌과 경험을 반성적으로 사고해보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가정과수업을 통한 또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의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정과수업을 통한 또래교육은 청소년들이 또래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인관계기술 및 배려, 이해와 같은 인성에 대한 지식 전달은 물론 또래 및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하는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Ban, E. S. (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youth problem behavior: Focusing on the ecological 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buk, Korea.

Ban, J. Y. (2016). *Effects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youth: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ek, H. J. (1999).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economic hardship,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achment,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Cheon, J. E. (2015).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A mediated effect of self-resilience on children's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Cho, G. Y. (2006).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ego-resiliency,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parenting behavior, family strength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Korea.

Han, H. -A. (2007).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an, S. H. (2015).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and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ong, S.-H. (2014). *The effect of the mother attach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xamin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Gyeonggi, Korea.

Huh, M. Y. (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uh, M. Y., & Ok, J. (2013).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Considered with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3*(3), 116-123.

Jeong, H. S.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ptim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Jeong, S. H.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over-control and over-expectation on adolescent mental health: Focusing on depression, agg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Welfare, 52*(0), 313-342.

Jeong, Y. W., & Kim, J. A. (2015). A concept analysis of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6), 644-655.

Jo, B. H., & Im, G. H.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Juang, L. P. (1999). The goodness of fit in autonomy timetable expectations between Asian-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 1023-1048.

Kang, J. J. (2008). *The influence of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parenting adolescent and adolescent*

autonom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Korea.

Ki, K. D.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crimin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Kim, A. G. (2002).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ocial supports, and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of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3), 31-50.

Kim, E. K. (2005).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and school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E. J. (2011).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Kim, H. G. (2014). *A study on the contributory factors to safety accident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Kim, H. J., & Hong, S. H.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1), 413-429.

Kim, J. -H.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J. M. (2014). *The relationship of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and attachment between group-home adolescents and care teacher: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and peer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Korea.

Kim, K. I., Kim, J. W., & Won, H. T.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Simple psychiatric examination manual*]. Seoul: Central Aptitude Institute.

Kim, M. J. (200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im, M. S. (2015).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resilience on adjustment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Gyeonggi, Korea.

Kim, N. E., Chae, J. H., & Cho, J. S. (2016). Development of 'the safety' theme-based integrat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1), 19-39.

Kim, N. Y. (2013). *Influence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ce: With social support as a moder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A. (2008). *Relations of adolescent's family system types,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E. (2015). *The structure model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ungnam, Korea.

Kim, S. H., & Kim, K. Y.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Kim, S. W.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of a child of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2009).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abuse experience in childhood and temperaments on problem behavior perceived by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7*(4), 161-175.

Kwon, J. E. (2003).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D. G. (2015).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Lee, E. T. (2011).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Mediated by shame and guilt pron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S. (2011). *The impact of parenting behavior as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adolescents on the stress and depression experienc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O. (2008). *The effect of ego-resilience based on the youth's participation in activity leisure on suicidal ris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Y., & Choi, S. M. (2011).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2), 635-650.

Lee, S. J. (2005). *K-CBCL을 통한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의 문제행동 비교 [Comparison of problem behaviors of accomplished and unfulfilled gifted students through K-CBC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Lee, S. O. (2014).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risk elements and ego resiliency on the early youth'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Lee, S. Y. (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ocial development of youth]. *가족과 문화, 10*(2), 41-72.

Lee, T. H., Lee, S. K., & Han, Y. S. (2015).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s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2), 131-158.

Lee, Y. S., Chae, J. H., Yoo, T. M., Wang, S. S., Lee, E. H., Kim, H. N., & Choi, M. J. (2013). 2009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relation to th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21-47.

Min, B. S.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ego-concept on academic accomplis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Min, Y.-H., Choi, S.-Y., & Jang, S.-H. (2017). Analyses on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s, school 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on probation. *교정복지연구*, -(47), 21-46.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2012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Guide for social welfare integration of Year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Standard median income, criteria for selecting livelihoods and medical benefits, and minimum assurance level of Year 2018]*.

Nam, H. M.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family psychological environment, self-control, and their friends' characteristics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ark, E. S. (2013).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problem behaviors among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ark, J. H (2013).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daily stress and self-resilience on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Park, S. G.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 program for the 'being parents' segment of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Focusing on practical inference instr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ark, S. H. (2005).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 attachment, coping strategy,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Chungbuk, Korea.

Park, S. W. (2012). *Relations among daily stress, ego-resilience, hop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Rhee, C. M. (2005). *A study on microsystem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Focused on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Seo, C. R. (2005).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h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So, M. G. (2008). *The study on 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juvenile, their self esteem and mis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ong, Y. H. (2013). *The Influence of childhood trauma and dysfunctional parental rearing styles on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Yoo, S. K., & Shim, H-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2013)인 고등학교 1학년생 총 2,017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및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 비일관성(+), 자아탄력성(-), 과잉간섭(+), 감독(-)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대인관계, 학교적응 각각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과수업을 통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8년 7월 6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3월 13일